

시진핑 ‘反미·非미 빅텐트’ 박차...얼마나 결집할까

SCO-전승철-리 동방포럼 흐름 속 中, 美 대항세력 결집 총력 中-리 브로맨스 속 ‘북중관계’ 회복 여부·인도 등거리외교 주목

상하이협력기구(SCO) 텐진 정상회의가 1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중국 주도의 ‘반미(反美)·비미(非美) 빅텐트’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SCO 정상회의와 3일 베이징 ‘중국 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전승절) 80주년’ 열병식, 그리고 3~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으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겨냥한 저항의 열매가 맺어질지 가늠된다.

중국은 일련의 흐름에는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화합과 단결에 방점이 찍혔다고 주장하지만, 속내가 미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중국과 러시아의 ‘브로맨스’가 축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중국이 ‘가깝고도 먼’ 북한과의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지와 인도가 대미 저항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세할지에 촉각이 모인다.

SCO 텐진 정상회의 첫날인 지난날 31일 저녁 시 주석은 부인 팡리위안과 함께 사상 최대규모의 SCO 정상급 참석자들과 환영 만찬을 가졌다. 보도를 종합하면 시 주석은 SCO 개막일과 하루 전날 텐진 영빈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레셉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모하메드 무이주 몰디브 대통령, 니콜 파시난 아르메니아 총리, 일함 알리예

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등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날 환영 만찬 전에 시 주석과 비공식 대화를 했다.

이들간의 SCO 텐진 정상회의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시 주석과 모디 인도총리의 정상회담이었다고 할 수 있다.

3일 전승절 열병식에는 베트남-라오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몽골-파키스탄-네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투르크메니스탄-벨라루스-이란 정상들의 참석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이 눈길을 끈다. 북한-중국-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 장면도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바다.

푸틴 대통령이 나흘간 방중을 마치고 5일부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80여개국 대표들과 회담한다. 지난날 15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의 여세를 몰아 영향력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 3개 빅이벤트를 연결하는 핵심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시 주석이 전날 SCO 텐진 정상회의에서 “SCO



1일(현지시간)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 기구(SCO)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글로벌사우스의 힘을 결집해 인류 문명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 푸틴 대통령이 30일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공유하는 유라시아 공간 전역에서 연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SCO 텐진 정상회의의 전부터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는 모디 인도 총리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50% 상호관세’를 두들겨 맞은 인도가 미국과 얼마나 이격해 중국에 다가설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일본-호주와의 안보협의체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의 입장 변화가 관전 포인트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트럼프 미 행정부의 무

역 전쟁 이후 중국과 인도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양국이 군사-안보-외교적인 충돌로 인한 ‘양속’ 관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절실한 사이”라고 짚었다.

실제 인도는 스마트폰에서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핵심 부품인 희토류 자석은 물론 중간 부품 등 하드웨어를 중국에 의존할뿐더러 알리바바-텐센트 등 중국 대기업의 투자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의 관세-무역 압박으로 수출에 큰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인도라는 세계 최대 시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미 지난 7월과 8월 양국 외교장관의 상호 방문을 통해 일부 ‘우호’ 조치가 이뤄졌다. 인도 요청으로 중국의 희토류 공급이 상당 수준으로 재개됐고

그동안 끊겼던 중국-인도 직항편도 이달부터 운항이 재개됐다.

현재로서는 인도와 적대관계인 파키스탄이 SCO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모디 총리가 SCO 텐진 정상회의의 합의문에 이름을 올릴지가 관심사다. 모디 총리는 3일 전승절 열병식에는 불참하는 ‘절제된’ 대중 접근을 하고 있다.

일각에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50% 상호관세 폭격을 받은 탓에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려고 SCO 텐진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중국에 확연하게 기울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등거리 외교’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3일 전승절 열병식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인물은 단연 김 위원장이다.

푸틴 대통령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범으로 여기는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서방이 행사 참석을 꺼리는 탓에 열병식에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심으로 26개국 정상이 참석한다.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광장에서 열병식을 참관할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걸고래였던 북중관계를 개선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이 베이징과 평양 관계가 다시 활성화하고 전략적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외신들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숙원인 북미 관계 개선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비치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은 일종의 국제정세 ‘간 보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는 결코 없다” 네타냐후, 서안지구 병합 ‘만지작’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움직임에 맞서 요르단강 서안지구 병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안지구 병합 방안은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재한 안보 내각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상정됐다고 소수 핵심 장관의 모임에 속한 한 관계자는 로이터에 전했다.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병합하면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은 어려워진다.

다만 이러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적용될지는 불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서안지구는 국제법에 따라 명목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행정권을 지닌 곳이지만, 실제로

는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에 유대인 정착민들을 보내 정착촌을 건설하고 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의 불법적 서안지구 점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해 유엔 최고 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 등을 점령하고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비판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2023년 10월 하마스 테러 공격 이후 이스라엘 내에서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수립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늘었다. 이에 가지지구는 물론 서안지구까지 병합하자는 이스라엘 강경파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날 21일 가지지구 최대 도시인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기드온의 전차 2단계’ 작전을 개시하고, 동시에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대거 늘리면서 병합을 위한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관세 불법 땀 미 정부, 수백조원 물어줘야 할 판”

블룸버그 통신 “한국 협상 늦추고 글로벌 무역 혼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이 미국 항소심 법원에서도 불법 판정을 받으면 서 글로벌 무역의 혼란이 더 확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이미 구두로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더 낮추려 시도하며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역 협상 전문가인 엔디 커틀러 아시아사사이 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링크트인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교역 파트너들이 틀림없이 명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지휘하기도 한 그는 “그들 중 다수는 미국과 기본적 무역 합의를 했고 일부는 여전히 협상 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날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관련법(IEEPA)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항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한 이 소송이 수조달러(수천조원) 규모의 글로벌 무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그동안 체결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가 이미 납부된 수천억달러(수백조원)의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요구와 씨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러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원은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져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없다고 재차 판결했다”며 환영했다.

그는 “이 관세는 미국인들에 대한 세금”이라며 “이는 일하는 가족과 기업들의 비용을 끌어올려 더 많은 인플레이션과 해고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무역 합의에 대한 미 행정부의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화된 내용은 거의 없이 구두로만 합의한 한국과 일본의 경우 법적 확실성이 더 뚜렷해질 때까지 더 낮은 자동차 관세를 압박하며 현재의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관세 50%를 부과받은 인도는 분명히 환호하고 있고, 중국은 진행 중인 협상에서 양보할지에 대한 입장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커틀러 부회장은 내다봤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국내에서 합의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작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지만 1심 재판부인 국제무역법원(USCIT)에 사건을 다시 보내 관세 금지명령의 범위를 좁히도록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미 재무부가 지난날 28일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해 미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의 총 관세 수입이 1831억달러(약 255조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격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